

# 韓愈 散文의 藝術的 技巧에 관한 一考察

홍 금 주\*

- 
- |                       |               |
|-----------------------|---------------|
| 1. 들어가는 말             | 3. 새로운 古文의 제창 |
| 2. “以文爲戲”와 “奇奇怪怪”의 실제 | 4. 나가는 말      |
- 

## 1. 들어가는 말

韓愈(768~824)는 당대 중엽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사상가, 문학가로서 이른바 당송팔대가의 선두이자 시가 방면에서도 특색 있는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특히 고문운동에 대한 기여는 역대 대부분의 평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부분인데, 그는 이 분야에 관한 한 당대 고문운동을 주도하여 산문 이론의 건립과 창작 실천면에서 공히 독창적인 성취를 이룩한 기념비적 인물로 칭송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난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의 문과 道에 관계에 대한 견해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주희나 程 같은 일군의 논자들은 유학의 도에 대한 천박한 이해와 ‘學文’을 통한 ‘學道’의 전도된 학문 방법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문장으로 희롱을 일삼았다(以文爲戲)’, 문사가 ‘기괴(奇奇怪怪) 하더라는 비난이 있다. 이 중에서 전자는 어디까지나 도학자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본래 문학가로서의 입장을 견지한 한유와는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문장으로 희롱을 일삼다(以文爲戲)’라는 말은 이미 그의 생전부터 제기되었던 지적으로서, 그가 고문을 창작함에 있어서 用字나 題材, 造句修辭에서 지나친 기이함을 추구하여 드디어는 스스로도 ‘奇奇怪怪’ 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난삽한 풍격을 형성한 것을 추궁한 것이다. 이것은 본래 당시의 재상이었던 裴度가 <奇李翱書>에서 구법과 음율의 의도적인 공격을 능사로 하여 ‘기이한 말 괴상한 표현(奇言怪語)’를 만들어냄으로서 글의 기이함을 추구한 한유의 창작 경향을 비판하면서 한 다음의 말에서 유래했다.

---

\* 필자 : 서울대 강사

“옛날부터 일세를 풍미하고 후대에 명성을 남긴 문학가가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신의 문사를 기이하게 하지 않았어도 이치는 저절로 새로웠다. … (성인의 문장은) 비록 크기가 천지를 두루 미치고 세밀하기가 틈이 없는 곳도 파고들 정도이지만 속어이나 怪語는 행여라도 있었던 적이 없다.

其實擅美一時，流譽千載者多矣。然皆不詭其詞而詞自麗，不異其理而理自新。… 雖大彌天地，細入無間，而奇言怪語，未之或有。

지금껏 이 말은 장적의 편지에 나오는 “어지럽게 섞이어 실체가 없는 말(駁雜無實之說)”이라는 지적과 관련지어 〈모영전〉류의 창작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그 글의 창작시기와 동기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고,<sup>1)</sup> 이밖에 한유가 지닌 문학창작의 즐거움을 중시한 창작상의 한 경향을 폭넓게 나타내는 것이라는 견해<sup>2)</sup>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문으로서 유가의 도를 선양하고자 했던 원래의 태도를 벗어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 다시말해, 그가 문장 특히 고문에 걸었던 높은 기대와 이상을 생각해보면, 이 ‘문장으로 희롱을 일삼다(以文爲戲)’라는 비난을 자초했던 부분은 그의 전체적인 문학 창작태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난감한 문제이다.

또한 이와같은 그의 창작태도는 비단 문장에만 그친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시가 창작에 있어서도 이른바 “산문으로 시를 썼다(以文爲詩)”라는 것이나 시의 풍격이 “奇險”하더라는 평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그는 일찍이 송대부터 이러한 “이문위시”적 경향으로 인해 시 방면에서는 훌륭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거나<sup>3)</sup> 일정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시의 본색의 대열에 끼일 수 없다<sup>4)</sup>는 논쟁의 주요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와 같은 견해는 시문이 제각기 고유의 서로 넘나들 수 없는 특질을 지녔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나온 것으로 수대에 걸쳐 수많은 논자들에 의해 답습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한유가 시문 양단의 장르적 한계에 갇히지 않고, 양자의 상호 교섭에 일정한 관심을 기울인 작가라는 사실을 또한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필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한다. 만약 이와 같이 시와 문 의 경계조차 허문 한유라면 고문의 창작에 있어서도 그러한 시도를 피하지 않았을까? 다시말해 ‘이문위회’ 한 것처럼 보이는 과격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어쩌면 그는 고문운동을 제창함에 있어 고문의 문체나 창작상의 규율을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의 산문 작품들을 살펴보고, 그가 행한 형식적 내용적 파격의 실제 속에서 ‘以文爲

1) 錢穆, 「雜論唐代古文運動」, (『中國文學史論文選集』 3권, 學生書局, 1979년) 1003-1005쪽 참조.

2) 이종환, 『한유산문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148-153쪽 참조.

3) 陳師道, 『後山詩話』, 『歷代詩話』(중화서국, 1981), 303쪽: “黃魯直云: …… ‘杜之詩法, 韓之文法也. 詩文各有體, 韓以文爲詩, 杜以詩爲文, 故不工爾.’”

4) 같은 책, 309쪽: “退之以文爲詩, 子瞻以詩爲詞, 如教坊雷大使之舞, 雖極天下之工, 要非本色. 今代詞手, 惟秦七黃九爾, 唐諸人不也.”

戲' 라고 하는 그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 2. “以文爲戲”와 “奇奇怪怪”의 실제

본래 중국의 산문은 실용적인 문장과 문학적인 문장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예컨대, 李斯의 〈諫逐客書〉이나 諸葛亮의 〈出師表〉는 모두 정책적인 이유에서 황제에게 올리는 공문이었지만 오늘날까지 여전히 심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韻을 맞추고 字數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완전히 구별되는 시가 문학과는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 없이 오로지 내용상의 구별에 의해서만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가 갈리는 산문적 전통이 그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해 형식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어찌면 역사적인 대세일 지도 모른다. 따라서 두드러지게 아름다운 형식과 수사를 중시하는 것은 중국 문장의 전반적인 경향으로서, 이러한 경향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을 駢驪文이 나타나고 魏·晉·南北朝를 거쳐 唐代에 이르기까지 성행한 것 역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나친 대우와 전고의 사용, 음조의 諧和에 힘쓰며 어떤 뜻의 표현보다도 아름답고 멋진 글 자체가 더욱 중시되었던 지나친 형식미의 추구는 문장의 실용과 治道를 중시하는 학자들에게 변려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였다.

南朝 梁나라의 裴子野(486-530)는 〈調蟲論〉에서 당시에 성행한 글들은 “淫文破典으로서 화려한 표현만을 능사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北朝에서도 蘇綽이 문체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隋나라 문제는 開皇 4년(584)에 모든 공사 문서는 모두 실질적인 기록을 하는 문체를 쓰도록 하라는 조칙을 발표하였다. 당나라 초기에도 남북조와 수나라의 역사를 썼던 李百藥, 魏徵같은 대신들이 그 사서의 〈文苑傳〉, 〈文學傳〉 등에서 六朝와 수나라의 문풍을 비판하며 좀더 실용적인 문장을 쓸 것을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王勃(674-679)·陳子昂(660-702)·袁結(723-772)·獨孤及(744-796)·柳冕(730?-804?) 등 지나치게 화려한 문장을 배격하고 있으니 이미 변려문풍의 지나친 수식을 염려한 사람들은 많았다. 그리하여 玄宗 때의 “燕許大手筆”이라고 불리던 張說(667-730)과 蘇頲(670-727)의 문장을 보면, 이미 변려체를 쓰면서도 初唐처럼 화려한 수사나 형식만을 추구하지 않고 내용의 표현에도 힘쓰고 있으니 이미 盛唐의 변려문은 六朝나 초당과는 다른 면모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唐代 문장의 주류는 여전히 화려한 변려문이었는데, 그것은 앞서 언급한 논자들의 주장이 대개 공소한 이론으로만 그쳤을 뿐 창작상의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함에 따라 변려문의 폐해에 대한 자각은 이미 무르익었으나 아직 이를 대체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까닭이다.

그러므로 중국문학사에서 진정한 “古文運動”의 시작은 韓愈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었

다고 본다. 그는 당시 자신의 문학적 동지인 柳宗元(773-819)과 함께 유교의 윤리를 바탕으로 형식만을 중시하는 변려문을 반대하고 ‘古文’을 쓸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창작상의 성취가 병행됨으로써 이제까지와는 다른 열렬한 반향을 얻었으니, 이제껏 옛 사람들이나 쓰던 고리타분한 형식으로 여겨졌던 ‘古文’을 새로운 시대정신과 풍격에 맞도록 재창조한 까닭이다. 그는 고문이 단순히 한대 이전의 옛 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적인 道가 담겨있는 글이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문장표현에 있어서도 “진부한 말을 버리고 자기에게서 나오는 개성적인 표현을 쓸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그는 ‘고문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문장이 마땅히 지녀야할 의미 전달의 우월성이나 편리함에 대한 고문의 우위를 부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여러 가지 내용과 문체를 가진 작품을 통해 고문의 새로운 용도를 개척하였고,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비록 변려문의 화려한 수사와 音韻의 諧和 등에는 반대를 제기하였지만 결코 이러한 요소들이 갖는 아름다움에 대해 둔감했던 것은 아니어서 그의 글에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생동하는 리듬이 살아있다. 새로운 ‘고문’의 실천자로서 그의 작품은 실로 매우 다양한 체제와 형식에 걸쳐 있다. 예를 들면, 유가의 도를 담는데 중점을 둔 〈原道〉, 〈原性〉, 〈原毀〉가 있고, 이치를 표현하는데 치중한 〈爭臣論〉·〈師說〉과 불교를 배척한 〈諫迎佛骨表〉 등이 있으며, 옛 역사에 대한 견해를 쓴 〈讀儀禮〉·〈讀荀子〉, 문학에 대한 주장을 쓴 글로 〈答李翊書〉·〈答劉正夫書〉 등이 있는데, 특히 〈送孟東野序〉나 〈送李愿歸盤谷序〉 같은 글에는 문학에 대한 견해나 기타 일들을 쓰면서 짙은 서정까지도 가미되어 있다. 그리고 〈張中丞傳後序〉와 같은 서사적인 글이 있는가 하면 〈祭十二郎文〉 같은 서정적인 들도 있다. 이 밖에도 〈圻者王承福傳〉 〈毛穎傳〉처럼 미장이를 빌어 고관을 풍자하거나 붓을 의인화한 작품들이 있다. 이 밖에도 記論을 비롯하여 祭文, 墓誌銘 등등의 명문이 있다.

다음은 그의 〈送窮文〉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궁귀에게 수레와 배를 준비하여 떠나가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다섯 가지 窮鬼의 이름과 소행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그 첫째 이름은 智窮인데, 고답적이면서도 뻣뻣하고 둥근 것은 싫어하고 모난 것을 좋아하며, 간사하고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짓은 차마 하지 못하오. 그 다음은 이름을 學窮이라고 하는데, 법도와 명성에 대해서는 오만하고, 심원하고 미묘한 것을 잡아내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높이 들추어내어 神의 기밀을 파악하지요. 또 그 다음은 文窮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능력만을 오로지 추구하지 않고 피기한 표현을 일삼아 때에 맞춰 활용할 수 없으니 다만 스스로 즐길 따름이요. 다시 그 다음은 命窮이라고 하는데, 그림자와 형체가 달라서 얼굴은 추하나 마음은 곱고, 이로운 일에는 다른 사람들 뒷전에 서고 책임질 일은 남들보다 앞장서지요. 또 그 다음은 交窮인데, 살갓을 부비며 남과 가까이 지내고 마음속을 다 토해내서 보여주고 발돋움하고 기다리며 남을 대우하고도 나를 원수자리에 놓이게 하는 것이지요.

其一名曰智窮，矯矯亢亢，惡圓喜方，羞爲姦欺，不忍害傷。其次名曰學窮，傲數與名，摘抉杳微，

高挹群言, 執神之機. 又其次曰文窮, 不專一能, 怪怪奇奇, 不可時施, 祇以自嬉. 又其次曰命窮, 影與形殊, 面醜心妍, 利居衆後, 責在人先. 又其次曰交窮, 磨肌憂骨, 吐出心肝, 企足以待, 我讐冤.

이와 같은 〈송궁문〉의 내용은 비록 비난의 어조를 띄고 있으나 내용은 오히려 칭찬으로 점철되어 있고, 내용은 비록 자신의 궁함을 한탄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높이고 칭찬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점은 의인화된 가난(窮鬼)과 작자 한유의 한 차례 씩의 문답으로 구성된 체제와 모두가 싫어하는 궁귀를 오히려 상좌에 모신다는 결말에 가면 착상의 기발함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콩트를 보는 듯한 희화적인 느낌마저 주고 있다. 특히, “때에 맞춰 활용할 수 없음(不可時施)”을 이야기하여 곧 시류에 맞게 문장으로 영합하지 못하는 자기 ‘문장의 궁함(文窮)’이 스스로를 곤궁한 처지에 빠뜨리는 원인임을 지적하지면서도 또한 곧 뒤이은 궁귀들의 항변, “사람의 한 평생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나는 그대의 이름을 세워 백세토록 지워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人生一世, 其久幾何, 吾立子名, 百世不磨.)”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남들과 다른 “기괴함(奇奇怪怪)”을 스스로 창출하여, “다만 스스로 즐길 따름(祇以自嬉)”이니, 이 또한 “문장을 가지고 유희로 일삼다(以文爲戲)”라고 평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송궁문〉의 내용과 형식적 특징은 전국 초나라 屈原의 〈離騷〉나 서한대 賈誼(B.C. 201-169)의 〈弔屈原賦〉와 같은 자신의 불우함을 직서한 문장의 계열에 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면서도 앞선 작품들이 일반적으로 자아내는 풍격과 흥취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는 또 〈答劉正夫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저 온갖 물건 중에서 아침저녁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들 주의 깊게 살피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기이한 것을 보게 되면 곧 함께 그것을 살펴보고 말들을 합니다. 대저 문장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습니까? ……그대 집안의 온갖 물건은 모두 의뢰하여 쓰이는 데가 있으나, 그 중에서 보배로 아끼는 것은 반드시 범상한 물건이 아닙니다. 군자가 문장을 대함에 있어서도 어찌 이것과 다르겠습니까?

夫百物朝夕所見者, 人皆不注視也. 及睹其異者, 則共觀而言之. 夫文豈異於是乎? ……足下家中百物皆賴而用也?<sup>5)</sup> 然其所珍愛者, 必非常物, 夫君子之於文, 豈異於是乎?

(내가 쓴 문장을) 남에게 보여줌에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으면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칭찬하면 걱정스럽게 생각했으니, 그 속에 아직도 사람들이 말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其觀於人也, 笑之則以爲喜, 譽之則以爲憂, 以其猶有人之說者存也.

이와 같은 한유의 주장을 종래대로 단지 “진부한 표현을 힘써 제거함(陳言之務去. 〈答李翊書〉)”라는 문장의 독창성에 대한 강조만으로 보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는데, 바로 애써 남과 다르고자 하는 태도가 실로 남다른 것이다. 당시의 이와 같은 상황은 다음과 같은 문장

5) 『校注本昌黎集』卷3

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단지 고인과 비슷하기만 한 것이면, 또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무슨 소득이 될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문장을 지은 지는 오래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속으로 좋다고 여기면, 사람들은 반드시 나쁘다고 여겼습니다. 조금 마음에 들면, 사람들도 조금 이상히 여기고, 크게 마음에 들면, 사람들은 반드시 크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때때로 일에 따라 시속에 따른 문장을 짓게 되어, 붓을 놓고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났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면 좋다고 여겼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것은 또한 조금 좋다는 말을 듣고, 아주 부끄러운 것은 반드시 아주 좋다고 여겼습니다. 고문이 오늘날의 세상에 정말 무슨 소용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는 사람이 알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但不知直似古人，亦何得於今人也？僕爲文久，每則意中以爲好，則人必以爲惡矣。小稱意，人亦小怪之，大稱意，則人必大怪之也。時時應事作俗下文字，下筆令人慙，及示人，則以爲好矣。小慙者亦蒙謂之小好，大慙者則必以爲大好矣，不知古文眞何用於今世也？然而俟知者知耳。（與馮宿論文書）

따라서 그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것, 기발한 것의 창조를 중요시하여 언제나 다양한 수사상 형식상의 실험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실험적인 창작은 후대에 산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칭송 받았으나 적어도 기존의 문학관습에 젖어있던 당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문장을 가지고 유희로 삼는다(以文爲戲)”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이 배도의 “문장을 가지고 유희로 삼는다(以文爲戲)”는 평은 보통 〈坊者王承福傳〉·〈毛穎傳〉과 같은 소설류의 문장에 대한 창작만을 두고 한 언급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궤(奇奇怪怪)”한 그의 문장 풍격과 궤를 같이 하는 창작태도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유는 일찍이 〈重答張籍書〉에서, 〈모영전〉의 내용이 지나치게 허황되니 이는 문장을 유희로 삼는 것(以文爲戲)이 아니냐는 장적의 힐난에 대해서 『詩經』 衛風篇 〈淇奥〉의 “알맞게 농을 하니 해가 되지 않네(善戲謔兮，不爲虐兮)”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문장을 변호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산문을 창작함에 있어서 한결같이 道만을 추구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형식과 내용상의 파격을 즐기는 그의 태도는 작품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그가 결코 문장이 道만을 실어야 한다는 식의 딱딱한 도학가가 아닌 진실로 문장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인물임을 나타낸다.

### 3. 새로운 ‘고문’의 제창

한유는 문장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하여 일찍이 이와 같이 말한 바 있다.

어떤 사람이 ‘문을 짓는 데는 무엇을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까?’ 하고 묻자, 필근이 ‘당연히 옛 성현을 스승 삼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옛 성현께서 지으신 책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문사는 서로 다르니, 무엇을 스승 삼아야 합니까?’ 하고 묻자 필근이 ‘그 뜻을 스승 삼는 것이지, 그 문사를 스승 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문이란 쉬워야 합니까? 어려워야 합니까?’ 라고 묻자, 필근이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옳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따름이니, 이것을 하도록 권하거나 저것을 못하도록 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답유정부서>>)

或問爲文宜何歸. 必謹對曰, 宜歸古聖賢人. 曰古聖賢人所爲書俱存, 辭皆不同, 宜何歸. 必謹對曰歸其意, 不歸其辭. 又問曰文宜易, 宜難. 必謹對曰無難易, 唯其是爾. 如是而而, 非固開其爲此, 而禁其爲彼也.(<<答劉正夫書>>)

한유와 동시대 인물인 李翱(?-844?)는 한유의 문장을 일컬어 “문장을 열고 닫는 것이 기괴하고 놀라우니 달리는 파도가 구름에까지 용솟음친다(開合怪駭, 驅濤湧雲)<sup>6)</sup>” 고 하였고, 李肇는 “元和<sup>7)</sup> 이후 문장을 지음에 한유에게 奇詭함을 배웠다(元和以後, 爲文章則學奇詭於韓愈)<sup>8)</sup>” 고 말하고 있으며, 한유 자신도 일찍이 <進學解>에서 “문장이 비록 기이하고 쓰임에서 구제되지 않지만(文雖奇而不濟於用)”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스스로도 이와 같은 경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실상 그가 주장한 산문 창작의 주장은 대개 두 가지로 간추려 진다. 하나는 ‘문장이 매끄럽고 글자가 적절하여 각기 그 기능을 표하는 것’으로 用字와 措詞에 있어서 문사의 순조로움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이 스스로 수립하고 기괴함을 구하는 것’으로 문장의 독창성을 추구한 것이다. 다시 말해, 내용 전달에 있어서는 평이하고도 명확한 문장 짓기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이하고 기발하다고 할 정도로 남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트만Hartman 교수는 이 ‘奇’ 자의 함의에 대해 ‘이상야릇하다(Wierd or Bizarre)’는 뜻이 아니라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다(Unconventional)’는 의미라고 해석한 뒤, ‘奇’는 기벽한 자구와 같은 문체상의 특징에 얽매이지 않고 고문을 인습에 얽매인 동시대의 다른 작품과 차이지게 하는 문맥과 형식상의 제반 특징에 관계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sup>9)</sup> 따라서 이 양자의 조화야말로 한유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고문의 최고 경지 ‘奇’는 그가 추구했던 미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유 산문의 형식에 있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파격은 뒤에 다시 거론하겠지만, <송궁문>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듯이, 문체와 내용 혹은 체재와의 괴리이다. 즉, 형식은 전

6) 『李文公集』 卷6 (祭韓吏部文)

7) 당의 연호(806-820).

8) 『唐國史補』 卷中

9) Charles Hartman, Han Yu and the Tang Search for Unity(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6) pp.256-257(이중환, 앞의 책, 182쪽에서 재인용)

통적인 문체의 관습에 따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작품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기존 문체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伯夷頌〉은 운문으로 된 일반적인 ‘頌’ 체와 달리 산문으로 된 의론이며, 〈守戒〉는 ‘箴戒’<sup>10)</sup>의 영역을 벗어나 ‘策’<sup>11)</sup>에 가깝고, 〈黃陵廟碑〉는 碑誌類에 속하면서도 순임금의 두 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 가지 견해의 허망함을 다룬 논변을 행하고 있고, 〈祭鱔魚文〉은 악어를 위협하고 토벌하고자 하는 격문의 성격을 띤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작품들 중에서 〈제악어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악어여, 지각이 있다면 너희가 자사의 말을 들어라! 조주의 땅은 큰 바다가 그 남쪽에 있다. 고래와 봉새의 거대함이나 새우, 게의 미소함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낱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여라. 악어가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는 닿을 것이다. 지금 악어에게 약속하노니, 3일 동안 너희가 흉악한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바다로 옮겨가 천자가 임명한 관리를 피하여라! 3일에 안되면, 5일까지. 5일에 안되면 7일까지. 7일에 안되면 이는 끝내 이사가려 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자사를 염두에 두지 않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악어가 어리석고 우매하여 자사에게 비록 말이 있다 하나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이다. 대저 천자가 임명한 관리를 업신여겨 그 말을 듣지 않고, 옮겨가 피하지도 않으며, 또한 어리석고 우매하여 백성과 사물에 해를 끼치는 자는 모두 죽여도 좋은 것이다. 자사가 곧 재주 있는 관리와 백성을 선발하여 역선 활과 독화살을 잡고서 악어와 교전을 벌여 반드시 모두 죽인 후에야 멈출 것이로다. 너희가 후회하지 말지어다!

鱔魚有知, 其聽刺史言! 潮之州, 大海在其南. 鯨鰲之大, 蝦蟹之細, 無不容歸, 以生以食, 鱔魚朝發而夕至也. 今與鱔魚約, 盡三日, 其率醜類南徙于海, 以避天子之命吏! 三日不能, 至五日, 五日不能, 至七日, 七日不能, 是終不肯徙也, 是不有刺史, 聽從其言也. 不然, 則是鱔魚冥頑不靈, 刺史雖有言, 不聞不知也. 夫傲天子之命吏, 不聽其言, 不徙以避之, 與冥頑不靈而爲民物害者, 皆可殺. 刺史則選材技吏民, 操強弓毒矢, 以與鱔魚從事, 必盡殺乃止. 其無悔!

이 문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唐代에 광동 조안현성 동북쪽에 악계라는 곳이 있고 그곳의 악어가 近方의 근심거리였는데, 당시 한유는 조주자사로(59세, 819년의 일이다) 부임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들의 해악을 그치게 할 방도를 못 찾았는데, 이 제문을 써서 강에 던져 악어에게 제사를 지내자 악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글의 체제는 哀祭類에 속하지만 특이하게도 사람이 아닌 악어를 제사 지내고 있고, 더욱 특이하게도 제사의 대상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고 몰아내는 檄文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파격에 착안하여 이중환은 이 글을 그 당시 토호들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sup>12)</sup> 옛 사람들의 관습으로 볼 때 악어에게 제

10) 문체의 일종으로 권계하는 수신과 도덕을 내용을 위주로 한다.

11) 문체의 일종. 政事에 관한 계책을 진술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12) 이중환, 앞의 글, 2장 3절 3. 애국정치의 사적 참조



사지내는 정도의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형식상의 과격은 작게는 또한 造句 方面이나 修辭 方面에서도 나타나는데, 句法을 변화시켜 語句의 앞뒤를 다르게 하거나 혹은 長短句를 이용하여 교차시키거나 正反句를 대비시켜 文句의 돌출과 기이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는 어떤 한 글자를 연달아 쓰거나 또는 글자의 문법적 성질을 혼합하거나 또는 어떤 글자들을 생략하여 특수한 어법을 만들거나 하여 문장의 기특하고 평범치 않음을 표현한다. 이러한 수법은 위의 〈제약어문〉에서도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3일 동안 너희가 흉악한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바다로 옮겨가 천자가 임명한 관리를 피하여라! 3일에 안되면, 5일까지. 5일에 안되면 7일까지. 7일에 안되면 이는 끝내 이사 가려 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자사를 염두에 두지 않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악어가 어리석고 우매하여 자사에게 비록 말이 있다 하나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이다.(三日不能, 至五日, 五日不能, 至七日, 七日不能, 是終不肯徙也, 是不有刺史, 聽從其言也. 不然, 則是鱷魚冥頑不靈, 刺史雖有言, 不聞不知也.)” 라고 한 구절은 먼저 4字句와 3字句가 서로 교차 반복되고 있으며, ‘不能’이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함과 동시에 시간을 늘려나가며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 다시 ‘是’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하여 앞 문장을 아우름과 동시에 다시 세 갈래로 나누고 그 사이에 ‘不然’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앞뒤가 지나치게 단조롭게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이것은 계속된 점층과 중간 휴지,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점층을 통해 대단히 격렬하고 엄한 느낌을 줄뿐만 아니라 파도가 몰아치듯 문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견잡을 수 없는 느낌을 주고 있으니, 실로 청의 劉大槐가 한유의 단편산문을 가리켜 말한 “한 척의 물이 파도를 일으키니 장강, 황하 보다 크다(尺水興波, 與江河比大)”라는 말과 같다 하겠다.

위의 〈제약어문〉의 경우는 기존의 형식은 그대로 두고 내용만을 새로이 한 것이지만 〈子產不毀鄉校頌〉라는 글은 반대로 본래 운문이었던 것이 산문으로 바뀌고 내용은 기존의 관습을 따른 경우이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이 글은 ‘儒’, ‘言’ 등 부분적으로 압운이 되어있고 4자를 위주로 쓰인 운문의 흔적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文從字順”의 산문화된 문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사모하는 옛 사람은 저 정나라의 공손교이다. 예법으로 국정을 보좌하였으나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안주하지 못하고 향교에 드나들며 저마다 떠들썩하였다. 어떤 사람이 자산에게 말하기를, “향교를 없애면 (논란이) 그칠 것입니다.”고 하였다. 자산이 대답하기를,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훌륭한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데. 대저 많은 말을 펼쳐내는 것은 역시 각자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내가 행하고, 좋지 않은 것은 내가 피하리니,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여기에서 살피겠습니다. 하천은 막아선 안 되고 여론은 그치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람의 言路가 막히고 위사람이 귀머거리가 된다면 나라는 기울어질 것입니다. 향교는 철수되지 않았고 정나라는 그리하여 잘 다스려졌다. 주나라가 흥했을 때는 노인을 봉양하

여 말씀을 구하였으나, 이미 쇠하고 나서는 비방하는 이들을 사람을 보내 감시하였다. 성패의 궤적이 환하게 보인다. 자산은 집정의 표본이었건만 불우하였던 탓에 교화가 한 나라에 한정되었다. 실로 이 도를 좇아 천하의 군주를 보좌하면 두루 시행되어 끝없이 미치리라. 아아!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까닭은 군주는 있는데 신하가 없어서이다. 그 누가 그를 이어받으리? 내 이 옛사람을 사모한다.

我思古人，伊鄭之僑。以禮相國，人未安其教，游於鄉之校，衆口。或謂子產，“毀鄉校則止。”曰：“何患焉，可以成美。夫宜多言，亦多其志。善也吾行，不善吾避，維善維否，我於此視。川不可防，言不可弭。下塞上聳，邦其傾矣！其鄉校不毀，而鄭國以理。

在周之興，養老乞言；及其已衰，誘者使監。成敗之迹，昭哉可觀。維是子產，執政之式，維其不遇，化止一國。盛率是道，相天下君，交暢旁達，施及無垠。於！四海所以不理，有君無臣，誰其嗣之，我思古人。

이와 같은 운문의 산문화는 이 뿐만이 아니라 碑誌類의 銘文이나 箴과 같은 운문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 예컨대 〈柳子厚墓誌銘〉의 銘文과 같은 것은 “이는 자후의 집이니 든든하고도 편안하여 이로써 그 후손들을 이롭게 하리라(是柳子厚之室，既固既安，以利其嗣人.)” 이라는 간단한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한유가 주장한 고문의 함의와도 관련이 있는데, 홍인표 교수는 한유의 고문이 갖는 함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즉, 한유의 고문이란 변문을 싫어하여 兩漢이전의 질박한 표현형식으로 복귀한 문체로, 駢體에서 散體로 변한 것을 고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유는 실제로 古文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한 적이 없다. 그들의 고문운동은 운문에서도 산문에서도 같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고문은 韻·散文에 다 같이 적용되는 문체를 일컫는 것이다.<sup>12)</sup>” 결국 한유의 고문이란 형식적인 시문(駢文)에 대하여 내용적인 산체(散體)를 과감하게 첨가하여 창작을 하였던 모든 작품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적 과격과 더불어 그는 종래 紀事와 立言의 전통을 뛰어넘어 산문에 보다 짙은 서정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는데, 이와 같은 성격은 주로 虛字와 字眼의 연용을 통한 문장구독의 연결과 平仄 및 압운의 강구, 그리고 반복적 영탄을 통한 시적 리듬감을 통해 더욱 커다란 상승효과를 얻고 있다. 다음의 〈祭十二郎文〉은 앞서 언급한 〈자산불휘향교송〉과 같이 본래 문체의 속성상 운문에 속하는 것이지만 ‘也’·‘乎’·‘矣’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시적 리듬감이 특출할 뿐만아니라 반복되는 영탄과 반복되는 문장구독을 통해 정감과 의미를 점점 시킴으로써 강한 서정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해 맹동야가 (남쪽으로) 갈 때 나는 너에게 편지로 말했었다. “내 나이 40도 되지 않았는데 눈은 침침하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고 이빨은 흔들린다. 여러 아버지 형제분들과 형들은 모두 건강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 나같이 쇠약한 사람이 어찌 오래 살 수 있을까! 나는

12) 홍인표, 「唐代古文論에 대한 문제점」, (『중국학보』 25집, 1985), 105쪽.

갈 수 없고 너는 울 수 없으니 조만간에 내가 죽어 네가 끝없는 슬픔에 싸일까 두렵구나” 라고. 뉘라서 짐작했겠는가! 젊은 사람이 죽고 나이 많은 사람이 살아 있으며, 강건한 사람이 요절하고 병약한 사람이 보전될 줄을! 아아! 정말 이와 같은가? 아니면 꿈인가? 아니면 전해온 소식이 진실이 아닌가? 정말이라면 우리 형님의 성대한 덕행이 도리어 그의 후사를 단명하게 했던 말인가? 너의 순수하고 현명함이 도리어 그의 은택을 입을 수 없었던 말인가? 나이 젊고 강건한 사람이 단명하여 죽고, 나이 많고 쇠약한 사람이 살아 있고 보전된단 말인가? 결코 정말이라고 할 수 없다. 꿈이고 전해온 소식이 진실이 아니라면 東野의 편지와 耿蘭의 부고가 어찌하여 내 옆에 있는가? 아아! 정말 이와 같도다. 우리 형님의 성대한 덕행이 도리어 그의 후사를 단명하게 했도다. 너의 순수하고 현명함이 그의 가업을 계승하기에는 마땅하나 그의 은택을 입을 수 없었도다. 이른바 하늘이라는 것은 진실로 예측하기 어렵고 신이라는 것은 알기 어려우며, 이른바 사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없고 수명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 비록 이와 같으나 나는 올해부터 희끗희끗한 것이 더러는 백발로 변해버리고 흔들거리던 이는 더러 완전히 빠져 버렸다. 모발과 혈기는 날로 더욱 쇠약해지고 정신과 의지는 날로 더욱 혼미해지니 얼마 안 있어 너를 따라 죽지 않겠는가? 죽어서도 지각이 있다면 우리들이 떨어지는 것이 얼마이겠는가? 죽어서 지각이 없다면 슬퍼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지만 슬퍼하지 않는 것은 끝내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너의 아들은 겨우 열 살이고 내 아들은 겨우 다섯 살이니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생명을 보전하지 못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장성할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 아아 슬프구나! 아아 슬프구나!

去年, 孟東野往, 吾書與汝曰, “吾年未四十, 而視茫茫, 而髮蒼蒼, 而齒牙動搖. 念諸父與諸兄, 皆康彊而早世, 如吾之衰者, 其能久存乎! 吾不可去, 汝不肯來, 恐且暮死, 而汝抱無涯之戚也.” 孰謂少者歿而長者存, 彊者夭而病者全乎. 嗚呼! 其信然邪? 其夢邪? 其傳之非其眞邪? 信也! 吾兄之盛德而夭其嗣乎! 汝之純明而不克蒙其澤乎! 少者彊者而夭歿, 長者衰者而存全乎. 未可以爲信也, 夢也, 傳之非其眞也, 東野之書, 耿蘭之報, 何爲而在吾側也. 嗚呼. 其信然矣. 吾兄之盛德而夭其嗣矣. 汝之純明宜業其家者, 不克蒙其澤矣! 所謂天者誠難測, 而神者誠難明矣! 所謂理者不可推, 而壽者不可知矣! 雖然, 吾自今年來, 蒼蒼者或化而爲白矣, 動搖者或脫而落矣. 毛血日益衰, 志氣日益微, 幾何不從汝而死也. 死而有知, 其幾何離? 其無知, 悲不幾時, 而不悲者無窮期矣. 汝之子始十歲, 吾之子始五歲, 少而彊者不可保, 如此孩提者, 又可冀其成立邪? 嗚呼哀哉! 嗚呼哀哉!

또한 한유는 문장을 지음에 있어 平仄의 聲調를 근간으로 하는 聲韻의 조화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실제 작품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上巳日燕太學聽彈琴詩序〉는 燕琴과 聽琴을 묘사한 제2단락이 句脚이 대부분 平聲으로 되어 있어 장조의 느린 語氣 속에 한적한 정조가 잘 드러나고, 〈與鄂州柳中丞書〉는 句脚이 대부분 仄聲으로 되어 있어 문장의 기세가 매우 힘차다. 또한 산문 중에 韻字를 쓰는 기법은 주로 배우를 이루는 부분에 쓰이고 있는데, 다음의 문장과 같은 것들이다.

자기가 들어간 학과는 주인시하고 떠나온 것은 노예시하며, 들어간 것에는 부합하고 떠나온 것은 비루하게 여긴다.

入者主之, 出者奴之, 入者附之, 出者汗之.(〈原道〉)

대체로 그 물들에 원인이 있고 그 근본에 뿌리가 있으며, 자기의 친척을 사사롭게 한 데서 생겨나고 자기의 몸을 사사로이 한 데서 완성되었다.

蓋其漸有恩，其本有根，生於私其親，成於私其身。(〈送齊 下第序〉)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말을 믿는 것은 듣는 이가 용렬해서이고, 증삼이 살인했음을 믿는 것은 사랑이 총명을 미혹했기 때문이며, 항백이 상심한 바는 난세를 만났기 때문이다.

市有虎，聽者庸也，曾三殺人，以愛惑聰也，巷伯之傷，亂世是逢也。(〈釋言〉)

이상과 같은 표현 기법에 대해 孫昌武 교수는 일찍이 이것이 行文을 더욱 유창하게 하고 눈길을 끌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 바<sup>13)</sup>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 4. 나오는 말

한유는 당대 산문의 대가로서 무엇보다 새로이 時文(駢文)에 대항하여 고문(散文)을 제창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무엇보다 산문의 아름다움과 유용함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그가 고문을 창작함에 있어서 가장 앞세운 것은 바로 문장의 독창성이었고,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 기발함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괴(怪怪奇奇)한 풍격이었다. 그것은 적당한 고문의 분야로 남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와 함께 산체(散體)의 활용을 극도로 추구함으로써 고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의미와 유가적 ‘道’의 전달이 물론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문장의 목표임에는 틀림없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고문을 새롭게 문학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어야만 필요가 있다. 즉, 고문은 변문보다 더한 심미적 가치를 지닌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는 작게는 造語의 기괴함이나 특이함, 혹은 수사법상의 배치나 字眼의 활용 등을 통해서 충족되었고, 크게는 형식과 내용의 여러 실험을 통해 운문을 대신할 수 있는 산문의 가능성 타진으로 이어져 관습적인 문체의 형식과 내용상의 파격이 이루어졌다. 〈모영전〉이나 〈오자왕승복전〉과 같은 소설류의 문장은 물론이요, 〈송궁문〉에 나타난 해학성이나 〈제십이랑문〉과 같은 음악성과 짙은 서정성은 독자들로 하여금 문장을 읽는 즐거움을 한층 배가시켜 고문을 창작하도록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실험적 창작 태도는 한유의 뛰어난 文才와 결합하여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文從字順’한 논리적 구성과 쉽고 평이한 문자의 사용을 통해 文意를 전달하는 가운데 변문의 장기인 화려한 수사나 대우, 음률의 諧和에 대한 엄격한 규약이 없이도 충분히 고문의 형식으로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던 것

13) 孫昌武, 『韓愈散文藝術論』(天津: 南開大學, 1986), 226쪽.

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한결같이 독창성을 강조하는 그의 실험적 태도가 결과적으로 동시대 인물 사이에 “以文爲戲” 한다는 비난을 얻는 빌미가 되었고, 이러한 비난이 특히 배도를 비롯하여 그 당시 집권층에서 비롯된 만큼 한유의 성취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에 합당한 반향과 대우를 얻지 못했던 원인중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는 점이다.<sup>14)</sup> 그러나 현재까지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이와같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장(고문)을 형식과 내용이 모두 아름다운 자체의 심미적 가능성을 극도로 추구하여 새로운 고문을 창조하였으며, 그 결과 길러진 고문의 역량이 후일 다시 북송대의 구양수나 소식과 같은 인물들에게서 활짝 꽃피워 이후 청말에 이르기까지 중국 산문의 정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校注本昌黎集』

『唐國史補』

羅聯添, 「唐代文學史兩個問題的探討」, 『中國文學史論文選集』, 1979.

孫昌武, 『韓愈散文藝術論』, 天津: 南開大學, 1986.

吳小林, 『中國散文美學』 一·二, 里仁書局, 1995.

錢 穆, 「雜論唐代古文運動」, 『中國文學史論文選集』 3권, 學生書局, 1979.

陳寅恪, 「論韓愈」, 『中國文學史論文選集』 3권, 學生書局, 1979.

陳 柱, 『中國散文史』, 東方出版社, 1996.

夏敬觀, 「說韓愈」, 『中國文學史論文選集』 3권, 學生書局, 1979.

주운초 외, 중국문학연구회 고대문학분과 역, 『중국문학비평사』, 이론과 실천, 1992.

이종한, 「한유 산문의 시적 특징에 관하여」, 『중국의 문학과 언어』(이불 김학주 선생 정년 기념 논문집), 신아사, 1999.

이종한, 『한유산문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홍인표, 「唐代古文論에 대한 문제점」, 『중국학보』 25집, 1985.

김종미, 『韓愈의 古文理念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90.

14)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羅聯添, 〈唐代文學史兩個問題的探討〉, 『中國文學史論文選集』, 1979, 1173-1181쪽을 참조.